

Dikṣā의 세 가지 이미지*

—들어가기, 정화하기, 봉헌하기—

박문성**

I 서론. II Dikṣā의 기본 구조. III 들어가기. IV 정화하기.
V 봉헌하기. VI 결론.

요약문 [주요어: dikṣā, 정화, 봉헌, 입문, 재생]

주로 결제 또는 입문으로 번역되는 디크샤는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수행자의 타파스, 베다학생의 브라마차르야, 입문자의 우파나야나 등의 단어와 혼용되곤 한다. 본래 베다제식에서 제주의 정화를 위해 사용되던 것이 변천 과정에서 의미와 용법이 다양해진 결과이다.

고층 브라마나 문헌의 디크샤 규정에 따르면, 제주는 두 종류의 정화행위를 하는데, 수염과 두발을 깎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곡물의례로 시작하는 것이다. 전자는 외적정화의 일환으로서 물과 관련되는 반면, 후자는 내적정화의 일종으로서 불과 관련된다. 이러한 정화행위들을 분석하면, 베다제식에 공통된다 할 수 있는 “들어가기, 정화하기, 봉헌하기”라는 세 이미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정화, 성화, 재생, 입문 등의 함축적 의미를 수반하는데, 정화와 성화가 1차적이고 재생과 입문은 2차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와 종교 분파에 따른 변천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화와 성별의 의미가 강했던 디크샤가 재생과 입문으로 강조점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과정에서 디크샤는 우파나야나와 같은 용어와 동치되거나 비정통적 학파에서 입문의례를 위한 고유용어로 차용된다.

* 이 글은 201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동양철학 교수. plogos@catholic.ac.kr.

I. 서론

주로 결제(潔齋) 또는 입문(入門)으로 번역되는¹⁾ dikṣā는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수행자의 타파스(tapas, 苦行), 베다학생의 브라마차르야(brahmacarya, 梵行), 입문자의 우파나야나(upnayana, 入門)²⁾ 등의 단어들과 함께 나오거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타르바 베다』(이하 AV로 약칭), 『마이트라야니 상히타』(이하 MS로 약칭), 『샤타파타 브라마나』(이하 ŚB로 약칭) 등에서 소마 희생제사를 준비하는 제주(祭主, yajamāna)의 정화와 관련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dikṣā는 시대적 흐름과 종교 분파에 따라서 의미와 용법의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곤다(J. Gonda)는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n Religion*³⁾의 제10장(Dikṣā章)에서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에 근거해서 dikṣā의 기본 의미에 대한 해설로 시작하여, 시대적 변천과정과 학파에 따른 고유한 용법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연구결과를 남겼다. 그리고 루빈(Timothy Norman Thomas Lubin)은 박사학위 논문 *Consecration and ascetical*

1) Dikṣā는 영어로 consecration 또는 initiation으로 주로 번역된다. 전자는 한자어로 정화(淨化), 성화(聖化), 성별(聖別), 축성(祝聖), 봉헌(奉獻)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는 “정화”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화”로 번역하였다. 후자는 입회 혹은 입문 등으로 번역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입문”으로 통일하였다.

2) 입문을 지시하는 고유명사 upanayana는 그리호야수트라(Gr̥hyasūtra) 문헌군에서 처음 발견된다. 한편 베다와 브라마나 문헌에서 입문식은 “나아가다 혹은 가까이 가다”는 뜻을 지닌 동사 upa√nī 혹은 upa√i로 서술된다. 梶原三恵子(2014) p. 1 각주 1).

3) Gonda(1965) pp. 315-462.

regimen : a history of Hindu Vrata, Dikṣā, Upanayana, and Brahmacharya(1994)에서 dikṣā가 브라타(vrata, 儀軌), 우파나야나(入門), 브라마차르야(梵行, 베다학습 개시)라는 용어들과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의미와 용법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카지하라 미에코(梶原 三恵子)도 박사학위 논문 *The brahmachārīn in the Veda : The Evolution of the "Vedic Student" and the Dynamics of Texts, Rituals, and Society in Ancient India*(2002)에서 브라마차린(brahmachārīn)⁴⁾과 디크쉬타(dikṣita)⁵⁾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논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dikṣā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용례에 따라서 번역어도 달리해야 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번역어를 확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용어가 내포한 의미의 다양성으로 인해 산스크리트 원문 해석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저술과 논문을 읽을 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층 브라마나 문헌들의 dikṣā 규정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ŚB를 비롯한 브라마나 문헌들에 따르면 dikṣā 규정은 성스러운 공간, 신체적 정화, 재생, 공물을 바침, 옷을 입음, 제주의 행동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dikṣā 규정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정된 제주의 행위를 분석하면, 베다제식에 공통된다 할 수 있는 “들어가기, 정화하기, 봉헌하기”라는 세 이미지를 도출

4) AV에 따르면 brahmachārīn은 ① [자신의 직무에] ‘일하는’(√viṣ) 자로서, ② 브라만(brahman), 고행(tapas), 정진(śrama), 허리띠(mekhalā)와 관련되고, ③ 스승에게 봉사하고, ④ 지적능력(medhā)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또한 그는 스승으로부터의 탄생, 불, 장작, 검은 영양 가죽, 정화, 긴 수염, 탁발 등의 요소와 관련된 자이다. 참조 : 梶原 三恵子(1995) p. 1050.

5) Dikṣita는 dikṣā를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AV에 처음 나타날 때는 일반적으로 “정화·성화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AV 이후의 문헌에서 제식과 관련되면서 “소마제를 위해 정화·성화된 자”라는 의미로 좁혀졌다. 梶原 三恵子(2002) pp. 45f.

해 낼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정화, 성화, 재생, 입문 등의 함축적 의미를 수반하는데, 제주로서의 정화와 공물로서의 성화가 1차적 의미이고 재생과 입문은 2차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세 이미지와 함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정화와 성별의 의미가 강했던 dikṣā가 어떻게 재생과 입문의 의미로 확장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II. Dikṣā의 기본 구조

Dikṣā는 동사 어근 √dikṣ[제식을 준비하기 위해] 몸을 정화하다. [제식을] 준비하다의 여성 명사이다. 사전적 정의⁶⁾에 따르면, 1차적 의미는 베다제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화 혹은 성화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신(神)에 대한 자기 헌신과 봉헌, 혹은 특정 스승 또는 종파에 입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곤다는 니야야(Nyāya)가 전하는 dikṣā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한다. 즉, ① 그것(dikṣā)은 자발적인 종교 계율(勸戒), 예를 들면 공물이 바쳐지는 제식의 종류와 관련된 12개의 성화 또는

6) Dikṣā는 『梵和大辭典』(p. 584)에 따르면, ① 몸을 정화함(淨身), ② [제식의 준비로] 종교적 계행(戒行)을 지키는 것] 또는 그 의식, ③ [전투를 위한] 장중함(莊重) 준비, ④ 봉헌(奉獻), ⑤ 입문, ⑥ 바라문의 끈을 받는 것, ⑦ ~을 향한 헌신, ⑧ [일반적] 종교적 의식, ⑨ [~을] 처음으로 아는 것, ⑩ [의인화된] 소마의 부인 등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Sanskrit English Dictionary*(p. 480)에 따르면, ① 종교 의례를 위한 준비 또는 성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과 의식 그 자체, ② 봉헌(dedication), [소마의 부인으로 의인화된] 입문(initiation), ③ [전투를 위한] 장중함 준비, ④ 인간 또는 신에 대한 자기 헌신(self-devotion), 완전한 포기(resignation) 또는 절제(restriction), 배타적인(전문적인) 직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입문(niyamaḥ, yathā dvādaśa yāgāṅgadikṣāḥ ity ādau)이다. 그리고 dikṣā는 곡물의례(dikṣāṇīyeṣṭi) 등을 포함한 예식(dikṣāṇīyeṣṭyā saṃpannaḥ saṃskāro dikṣā)이다. ② 다르마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것은 [베다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입문 예식이다”(upanayana-saṃskāra iti dharmajñāḥ)라고 한다. ③ 탄트라에 의하면 “[dikṣā는] 갈구하는 신의 만트라를 배우고자 할 때, 그것의 전수 또는 가르침”(abhīṣṭa-deva-mantra-grahaṇe tad-upadeśa itī tāntrika āhuḥ)이다.⁷⁾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dikṣā는 『리그베다』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AV 12.1.1에서는 satya, br̥hat, ṛta, urga, tapas, brahman, yajña와 함께 대지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선언된다.⁸⁾ 또한 AV 19.40.3에서는 dikṣā와 함께 지적 능력(medhā)과 고행(tapas)을 손상되지 않게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장면도 있다.⁹⁾ 따라서 이 시기에 이미 dikṣā가 진실, 지혜, 고행 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다제식을 규정하는 제의서에 따르면, 제주는 아그니슈토마(agnīṣṭoma, 소마제의 기본형) 본 제식(大祭)의 준비 단계(小祭)로서 dikṣā를 행한다.¹⁰⁾ 이것이 dikṣā의 일차적 용례라고 할 수 있

7) Gonda(1965) p. 319.

8) “진실, 고귀함, 질서, 강함, 결제, 고행, 브라흐만, 희생제사 등이 대지를 유지시킨다. 그녀(대지)는 우리를 위해 [이미]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의 여주인(女神)이다. [그] 대지가 우리를 위해 넓은 세계를 만들기를!”(satyaṃ br̥had ṛtam ugraṃ dikṣā tapo brahma yajñaḥ pṛthivīm dhārayanti/ sā no bhūtasya bhavyasya patny uruṃ lokam pṛthivi naḥ kṛṇotu//AV 12.1.1//)

9) “[신들이여!] 우리의 지적 능력이,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고행이 파괴되지 않게 되기를!”(mā no medhām mā no dikṣām mā no hiṃsiṣṭam yat tapaḥ//AV 19.40.1//)

10) 소마제의 기본형 아그니슈토마 제식은 4일의 준비 의례와 하루의 본 제식으로 구성된다. 제주는 작은 집에서 물에 의한 정화(apsudikṣā)와 함께 dikṣā를 행한다. 이것은 소마제의 제주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제식 중의

다. 제의서의 고층에 속하는 ŚB 3.1.1-3.2.2에 dikṣā와 관련된 규정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다른 6개의 브라마나에도 상응하는 구절이 발견되는 것으로서 크게 6부분으로 나뉜다. 즉, ① 성스러운 공간(작은 집), ② 신체적 정화(apsudikṣā), ③ 재생, ④ 공물을 바침, ⑤ 생명의 옷을 입음, ⑥ 제주의 행동 지침이다.¹¹⁾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는 dikṣā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작은 집(vimita 혹은 śālā)¹²⁾에 들어가서¹³⁾ 머물어야 한다. 제주는 작은 집을 천정의 들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게(prācīnavamśa)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쪽이 신들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 집은 사방이 막혀 있어야 하는데, 상징적으로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분된다는 것을 표현하고¹⁴⁾ 제의적으로 비로 인해 제주가 오염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ŚB 3.1.1.6-8). 제주는 규정에 맞게 집을 짓고 예식 첫날 오후에 dikṣā를 수행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간다(ŚB 3.1.2.1).

제주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수염과 두발을 자르고 손톱과 발톱을 깎고(ŚB 3.1.2.4-9), 목욕을 함으로써 부정을 씻어 내고(ŚB 3.1.2.10-12), 완전함을 얻기 위한 옷(dikṣitavasana)을 입음으로써(ŚB 3.1.2.13-18) 외적정화를 하는 것

제주의 상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제주는 “태아”가 되어 신들의 슬하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지만, 그것에 앞선 의례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大島 智靖(2006) p. 313; 김진영(2006) pp. 99f.

11) Lubin(1994) p. 90.

12) Dikṣā를 지키기 위해 제주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작은 집은 경전에서 śālā, prācīnavamśa, dikṣitavimita, maṇḍapa 등으로 표현된다.

13) ŚB에 따르면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위 3계급인 재생족(dvijanman, 또는 dvijā)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브라만, 라잔야(크샤트리아), 바이샤만이 제사를 지낼 자격을 지닌다.”(tan na sarva ivābhiprapadyeta brāhmaṇo vaiva rājanyo vā vaiśyo vā te hi yajñiyāḥ//ŚB 3.1.1.9//)

14) Gonda(1965) p. 318.

이다. 그것을 통해 제주는 정화와 고행으로 온전히 휩싸인 사람이 된다(ŚB 3.1.2.20).¹⁵⁾ 이와 같이 정화를 통해 dikṣā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제주를 Adhvaryu 사제는 작은 집으로 들여보낸다(ŚB 3.1.2.21).¹⁶⁾

ŚB는 작은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주가 행하는 다른 정화 수단도 규정한다. 우선 제주는 제식 첫날에 곡물의례(dikṣāṇīyeṣṭi)를 바쳐야만 한다. 그것은 아그니(Agni)와 비슈누(Viṣṇu) 신에게 11점 시의 쌀 케이크(puroḍāśa)를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다(ŚB 3.1.3.1). 이어서 제주는 그 집의 동쪽에 서서 스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선한 버터로 도유하고(ŚB 3.1.3.7), 신성한 풀로 만든 도구(pavitra)로 정화해야 한다(ŚB 3.1.3.18). 이와 같은 정화 수단들을 통해 희생제사에 합당하게 되면(ŚB 3.1.3.27), Adhvaryu 사제는 제주를 작은 집으로 들여보낸다(ŚB 3.1.3.28).

제주는 정해진 날수만큼 작은 집에 머물면서 침묵, 음식 규정, 불 옆에서 자기 등의 다양한 의케(vrata)를 따르면서 dikṣā를 실천한다. 예를 들면, 제주는 사제를 따라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제단 제화(祭壇祭火 āhavanīya)와 가정제화(家庭祭火, gārhapatya) 사이를 거닌다. 그것은 소마 압착(壓搾) 전까지 행해진다(ŚB 3.1.3.28). Dikṣā와 관련된 모든 행위(sarvāṇi dikṣāyā)는 제주가 오염된 세속으로부터 떠나가서 정화된 상태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성화된 희생제물로서 신들에게 바치는(audgrabhaṇa, ŚB 3.1.4.1) 것을 상징¹⁷⁾한다.

이상에서 ŚB를 통해 살펴본 dikṣā 규정의 제식행위를 분석하면

15) “그대는 정화와 고행을 지닌 사람이다.”(dikṣā-tapasos tanūr asity//ŚB 3.1.2.20//)

16) “그 때 그를 작은 집으로 들여보낸다.”(athainam śālām prapādayati//ŚB 3.1.2.21//)

17) Lubin(1994) pp. 103ff.

들어가기, 정화하기, 봉헌하기라는 세 이미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dikṣā의 의미와 용법이 확대되는 원인과 과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Ⅲ. 들어가기

Dikṣā의 첫째 이미지는 “들어가기”이다. ŚB와 MS 뿐만 아니라, 『카타카 상히타』(이하 KS로 약칭), 『타이트티리야 상히타』(이하 TS로 약칭) 등의 규정은 제주가 천정의 들보가 동쪽으로 향한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dikṣā를 실천한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그런데 제주가 작은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 어근 adhy-ava√so(ŚB 3.1.1.11)와 pra-ava√so(MS 3.6.1) 등은 개간지에 이주하는 것 혹은 식민지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머물던 곳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서, 아리안의 이주 생활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가 dikṣā를 실천하기 위해 작은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그때까지 머물던 세속세계를 떠나서 신들의 영토(devakṣetra)로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¹⁸⁾

또한 제주가 짓는 작은 집은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 태아가 머무는 자궁(garbha)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dikṣā를 실천할 때, 작은 집에 머물고 있는 제주는 이생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된

18) 大島 智靖(2006) p. 313.

후에 달에 올랐다가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식물에게 흡수된 후에 남성에게 먹힌 다음, 정자의 형태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태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신들의 영토 혹은 자궁으로 상징되는 작은 집에 머물면서 dikṣā를 실천하는 제주는 세속적으로는 현세를 출발하여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천상적으로는 새로운 탄생을 위해 신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즉, 제주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中有)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ikṣā를 통해 제주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만, 그것에 앞서서 의례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dikṣā를 통해 세속적인 가장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신적으로 거룩한 존재, 즉 합당한 제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그가 아그니슈토마 제식을 끝맺고 목욕(avabhr̥tha)을 하면, 역으로 거룩한 존재인 제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세속적인 가장으로서 재생하게 된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dikṣā에서 “들어가기”라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제주가 dikṣā 실천을 시작하는 것, 작은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정화되고 성화된 상태 혹은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함의한다. 그것은 현재의 상태에서부터 이탈하여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고, 현세적 욕망으로부터 이탈[離欲]하여 신적으로 성화된 존재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이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제주는 스스로 공물(供物)이 되어 신들에게 바쳐지고, 태아로서 신들의 세계에 머물다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작은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세속적인 가장(家長)이 제식의 제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제식에 합당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이미지는 dikṣā를 통한 재생(再生)²⁰⁾과 통과의례(通過儀禮)²¹⁾로서

19) 大島 智靖(2014) p. 291.

20) 브라마나의 재생에 대한 언급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주가 세 번 태어난다는

의 기능을 나타낸다. 그리고 dikṣā를 통한 재생과 통과 의례라는 상징성은 베다학생의 입문의례인 우파나야나가 지닌 상징성²²⁾과 유사하다.

그리고 제주가 자궁으로 상징되는 작은 집에서 들어가서 머물다가 태어난다는 상징은 베다학생이 우파나야나를 위해 스승에게 나아갔을 때, 스승이 3일간 그를 임신했다가 베다학생으로 탄생시킨다는 상징적 행위²³⁾와도 연결된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베다학

규정이다. 예를 들면 ŚB 11.2.1.1은 “그래서 인간은 세 번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 다음으로 제식을 행하는 [제주]는 두 번째로 태어난다. 다음으로 [제주]는 죽어서 불 위에 놓여지고 [화장된 다음] 그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세 번 태어난다고 말한다.”(trir ha vai puruṣo jāyate/ etan nv eva mātuś cādhi pituś cāgre jāyate 'tha yaṃ yajña upanamati sa yad yajate tad dviṭiyam jāyate 'tha yatra mriyate yatra nam agnāv abhyādadhati sa yat tataḥ sambhavati tat trṭiyam jāyate tasmāt triḥ puruṣo jāyata ity āhuḥ//ŚB 11.2.1.1//) 梶原 三惠子(2003a) p. 82 각주 12; Gonda(1965) p. 337.

- 21) 베다학생의 입문의례는 스승에게 입문하여 학습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학습의례라는 상과 새로운 탄생과 관련된 통과 의례로서의 상을 내포한다. 그것은 처음에 바라문 계급에게만 허용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재생족인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의 소년이 그것을 통해 재생함으로써 힌두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통과 의례로서 속성을 갖게 된다. 그것과 유사하게 제주는 dikṣā를 통해 재생됨으로써 제식에 참여할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고 신들의 세계로 초대되기 때문에 dikṣā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梶原 三惠子(2003a) pp. 86ff.
- 22) “이와 같이 재생족들의 우파나야나(入門)와 관련된 규정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재생의 표징이고 상서로운 것이다. [이제 그대가] 행해야만 하는 의무(karmayoga)를 익히도록 하라.”(eṣa prokto dvijātīnām aupanāyaniko vidhiḥ/ utpatti-vyañjakaḥ puṇyaḥ karmayogaṃ nibodhata//Manu 2.68//) 그리고 베다학생의 입문의례와 재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梶原 三惠子(2013) pp. 50f.를 참조하라.
- 23) “입문시키는 스승은 브라마차린을 [자신] 안에 태아로서 만든다. 그(스승)는 3일 밤 동안 그(입문자)를 태내에 품는다. 그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신들이 찾아 올 것이다.”(ācārya upanayamāno brahmācāriṇam kṛṇute garbham antaḥ/ taṃ rātris tisra udare bibharti taṃ jātaṃ draṣṭum abhisamṃyanti devāḥ//AV 11.5.3//) AV에서 알 수 있듯이 재생은 베다와

생은 입문의례를 마치면서 의례적인 죽음으로 상징되는 스승²⁴⁾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마제의 dikṣā와 베다학생의 입문의례 유사점으로 인해, 두 용어는 브라마나 시대로부터 혼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부 종교 분파, 특히 탄트라²⁵⁾와 자이나교에서는 입문의례를 지시하는 고유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탄트라와 자이나교의 입문의례와 베다학생의 입문의례에는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입문자를 dikṣā를 통해 특정 종교 혹은 분파에 입문시켜서 새로운 신앙 혹은 수행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입문자에게 종교적 개종과 교의에 대한 전폭적 신앙(śraddha) 혹은 숭배하는 신에 대한 성신(誠信, bhakti)이 요구된다. 하지만 베다학생의 우파나야나는 신앙 자체에 대한 입문이 아니라 베다학습에 입문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베다학생의 우파나야나가 상위 3계급인 재생족의 남자에게만 한정되는 반면, 탄트라와 자이나교의 dikṣā는 모든 계급의 남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베다 이후의 입문식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梶原 三惠子(2013) p. 418; Lubin(1994) pp. 24f.

24) “스승은 죽음이고 바루나이다.”(ācāryo mṛtyur varuṇaḥ//AV 11.5.14/) AV에서 Varuṇa와 Soma 등의 신과 더불어 스승은 죽음으로 불린다. Lubin(1994) p. 28.

25) 탄트라는 ① 입문자를 자파(自派)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② 신에게 합일시키고, ③ 비밀의례와 명상을 통해 신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 dikṣā를 행했다. 引田 弘道(1993) p. 1100.

26) 引田 弘道(1993) p. 1100 ; 阪本(後藤) 純子(2014) pp. 342f.

IV. 정화하기

Dikṣā의 둘째 이미지는 “정화하기”이다. ŚB에서 dikṣā의 정화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수염과 두발을 깎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곡물의례(dikṣanīyeṣṭi)로 시작하는 것이다. 전자는 외적정화의 일환으로 실천되는 것으로서 물(āpas)²⁷⁾에 의한 정화(apsudikṣā)와 관련된 반면, 후자는 내적정화의 일종으로서 불에 의한 정화²⁸⁾와 관련된다. 이 중에서 곡물의례로 시작되는 후자는 희생제물과 관련된 상징적 정화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수염, 두발, 손톱 등을 제거하기, 물로 목욕하기, dikṣā를 위한

27) 물(āpas)은 우주와 생물에 편재하며, 형태를 바꿔가면서 항상 유동하며, 언제나 우주를 순환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불사(不死, amṛti), 불멸(不滅, aksiti), 진실(眞實, satya)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물의 일상적인 작용은 “더러움을 씻어 내버리는 것”이지만, 베다제식에서는 이와 같은 정화의 기능뿐 아니라 신앙(sraddhā)에 대한 상징 또는 맹세와 계약을 보장한다는 관념까지도 갖는다. 阪本(後藤) 純子(2008) pp. 110-90.

28)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부터 정화의 도구로서 받아들여졌는데, 한편으로는 타고르고 있는 실질적인 불(agni)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행을 통해 생겨나는 내적인 열(tapas)을 의미한다. 제주는 제화(祭火)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화되기도 하고, 침묵과 단식 등의 고행을 통해 과거세와 현재에서 쌓은 업 물질을 태움으로써 내적으로 정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AV에서부터 제식을 위한 정화를 뜻하는 dikṣā는 자주 타파스와 함께 사용되었고 ŚB 3.4.3.2, 즉 “그들은 불을 수단으로 [스스로를] 가족으로 감쌌다. 불(agni)이 곧 고행(tapas)이다. 고행이 곧 정화(dikṣā)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은] 재(再)dikṣā의 수단이다. …”(te 'gninaiva tvacaṃ vipalyāṅgayanta/ tapo vā agnis tapo dikṣā tad avāntarām dikṣām upāyaṃs …//)에서처럼 불, 고행, 정화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승석(1997) p. 149.

옷을 입기, 성스러운 끈(yajña-upavīta)을 걸치기 등으로 구성된 의적정화는 세속적인 가장으로부터 제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인데, 제의서들에 기술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²⁹⁾

- ① 개시할 때 : 제주는 수염, 두발, 손톱을 제거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특정 의케(vrata)를 받는다. 이 때 그는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죽고 초월적 존재로서 탄생한다.
- ② 실천 중에 : 제주는 의케를 지키는 동안에는 수염, 두발, 손톱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기르면서 고유한 옷³⁰⁾과 허리끈을 착용한다. 이 때 긴 수염, 긴 두발, 긴 손톱은 일상생활로부터 이탈하여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표징으로 초인간성을 상징한다.
- ③ 종료할 때 : 의케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제주는 수염, 두발, 손톱을 제거하고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 때 제주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인간계로 재생한다.³¹⁾

고대인도 전통에서 수염, 두발, 손톱 등은 죽은 피부이지만, 잘라도 언제나 금방 자라나기를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부정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자연 주기와 인생의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자르는 것이 각종 의례에서 행해졌고, 그것이 베다제식에도 포함되었다고 추측된다.³²⁾

전통적으로 제식(특히 소마제), 고행, 특별한 수행, 베다학습 등의 비세속적인 종교행위를 시작할 때 그것들을 제거하였다. 그리

29) 阪本(後藤) 純子(2014) p. 335.

30) Dikṣita에서 사용되는 옷은 탄생의 과정을 나타내며, 성화된 제주가 희생제사라는 자궁에서 태아가 된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Lubin(1994) pp. 108ff.

31) 이것과 유사한 구조가 베다학생이 학습을 끝나치고 커가하기 전에 행하는 예식에서도 발견된다.

32) 阪本(後藤) 純子(1993) p. 78.

고 종교행위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르다가 그것을 종료하고 세속세계로 돌아오기 직전 그것들을 다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행위의 개시와 종료 시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정화를 위한 실천일 뿐 아니라, 하나의 생존 상태에서부터 다른 생존 상태로 넘어가는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³³⁾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종교 예식에서 물은 정화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그것은 더러움을 씻어 내는 물의 속성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것이다. 베다제식에서도 물을 통한 정화는 의례의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는데, 그것은 목욕(snāna)하는 것, 정화 대상에 물을 뿌리는 것(prakṣaṇa), 물에 접촉하는 것, 물로 닦아 내는 것, 물을 훌쩍이며 마시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목욕을 중심으로 하는 정화는 각종 제식의 개시와 종료 때 행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베다학습을 끝마치고 가장으로서 가정제를 지내는 바라문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매일 아침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라문 가정은 매일 잠에서 깨어나면 목욕장으로 가서 물을 훌쩍훌쩍 마시면서 입을 닦는 것(ācamana)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빨을 닦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의복을 빨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조식(調息)을 함으로써 정화의례를 행한다.³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염, 두발, 손톱 등을 제거하는 것과 목욕을 하는 것은 정화와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소마제의 제주뿐만 아니라, 가정제(家庭祭)를 지내는 가장, 베다학습을 시작하는 학생, 고행을 실천하는 수행자 등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목욕하는 것은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되었다.³⁵⁾

33) 阪本(後藤) 純子(2014) p. 334.

34) 자세한 내용은 永ノ尾 信悟(1993) pp. 261-318과 高橋 明(1993) pp. 50-54를 참조하라.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구분을 넘어 죽음과 재생, 즉 개시 전의 정화(apsudikṣā)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존재(家長)로서의 죽음과 거룩한 존재(祭主)로서의 탄생, 종료 후의 정화(avabhṛtha)³⁶⁾에 있어서는 역으로 제주로서의 죽음과 가장으로서의 재생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소마제, 가정제, 베다학습, 고행 실천 등에서 유사한 구조와 상징적 의미를 갖고 행해졌다.³⁷⁾

그와 같이 물과 관련되고 수염 등을 제거하는 dikṣā는 1차적으로는 외적이고 신체적인 정화를 위한 것이지만, 함축적으로는 성(聖)과 속(俗)의 세계로 넘나드는 재생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들어가기’와 마찬가지로 ‘정화하기’라는 이미지도 dikṣā가 정화와 재생을 모두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V. 봉헌하기

Dikṣā의 셋째 이미지인 “봉헌하기”는 내적정화와 희생제물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희생제사의 희생제물은 제주 자신을 대신해서 봉헌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아그니슈

35) 阪本(後藤) 純子(1993) p. 77.

36) “물에서 dikṣā를 행한 다음, 신들인 천계에 갔던 것이다. 그가 목욕을 할 때, 그것과 동일한 dikṣā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avabhṛtha 즉 물로 내려갈 때에, 그와 같이 dikṣā를 다시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apsudikṣām praveśayitvā svargaṃ lokam āyan. yad apsu snāti tām eva dikṣām ālabhate/ 'tha yad apo 'vabhṛtham abhyavaiti tām vā etad dikṣām punar apsu praveśayati//MS 3.6.2//) Avabhṛtha에 대해서는 Lubin(1994) pp. 123-129를 참조하라.

37) 阪本(後藤) 純子(2008) p. 96.

토마 제식 등에서 제주는 dikṣā를 통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서 바친 다음에, 희생제사에서 팔았던 것을 다시 사는 제식을 행한다.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곡물의례(dikṣāṇīyeṣṭi)이다. 제주는 아그니와 비슈누 신에게 11접시의 쌀 케이크(puroḍāśa)³⁸⁾를 요리해서 바친다. 이때 공물(供物)은 제주를 상징하고, 그것을 헌공하는 순간 제주는 상징적으로 죽는다고 믿었다.³⁹⁾ ŚB 3.1.3.1은 곡물의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는 물을 들고 나와서 아그니와 비슈누에게 11접시의 쌀 케이크를 [준비해서] 바친다. 왜냐하면 아그니(agni神)가 바로 모든 신격들이고 모든 신격들에게 바쳐진 것이 아그니(火)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그니는 바로 제식의 이쪽의 끝이고 비슈누는 [제식의] 저쪽의 끝이다. 따라서 “그 모든 신격들을 붙잡고서, 그리고 모든 제식을 붙잡고서, [나는] 성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에 아그니와 비슈누를 위한 11접시의 쌀 케이크가 있다.⁴⁰⁾

이와 같이 제주는 현생과 내생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목우의 젓(ghṛta)으로 만든 죽과 곡물로 만든 케이크 한 쌍을 봉헌한다. 이때 제주는 의례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신적인 존재로서 태어나는 일시적인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과한다.⁴¹⁾ 이것은 제주가

38) ŚB 1.2.3.6-9에서는 puroḍāśa가 희생동물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쌀 케이크를 봉헌하는 것은 희생제사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것이고, 이때 사용되는 원료인 쌀 혹은 보리는 제주의 “꿀수”를 대신한다고 여겨졌다. 大島 智靖(2011) p. 807 각주 22).

39) 大島 智靖(2006) pp. 311-310.

40) apaḥ praṇīya āgnāvaiṣṇavam ekādaśa-kapālam puroḍāśam nirvapaty agnir vai sarvā devatā agnau hi sarvābhyo devatābhyo juhvaty agnir vai yajñasyāvarārdhyo viṣṇuḥ parārdhyas tat-sarvās caivaitad-devatāḥ pariḡṛhya sarvaṃ ca yajñam pariḡṛhya dikṣā iti tasmād āgnāvaiṣṇava ekādaśa-kapālaḥ puroḍāśo bhavati//ŚB 3.1.3.1//

41) 大島 智靖(2006) pp. 313-310.

자기희생을 통하여 신들의 공물(供物)로 변하는 것, 그리고 태아가 되어 재생하여 신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dikṣā의 신학적 상징성을 잘 나타내 준다.

제주는 dikṣā를 통해 태아로서 태어남으로써 신들과 동등한 관계⁴²⁾를 맺기도 하지만, 그 전에 신들에 대한 공물로서 종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바루나(Varuṇa)의 밧줄에 묶인 몸이 되어 신의 전유물이 되었다가 해방된다.⁴³⁾ 제주가 신들의 전유물이 되었다가 해방된다는 것은 아그니 신과 신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⁴⁴⁾

이와 같이 ‘들어가기’ ‘정화하기’에서와 마찬가지로 dikṣā의 ‘봉헌하기’라는 이미지도 1차적으로 제물로서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화와 자기희생을 의미하지만, dikṣā에서 팔았던 자기 자신을 제식을 통해 다시 산다는 의미에서 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징성은 베다학습의 입문의례에서도 발견된다. 베다 학생은 입문할 때, 스승에 의한 3일간의 임신기간을 통해 의례적

42) Vesci(1992) p. 286.

43) “Dikṣā에 들어간 자, 그 자는 밧줄에 의해서 둘러져 있는 것이다. 밧줄은 바루나에 속한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 그 자를 바루나가 붙잡는다. ... dikṣā에 들어간 자, 그 자는 신들의 전유물이다. 결코 인간들에게 적절한 전유물이 아니다.”(pāśena vā eṣo 'bhihito yo dikṣito, varuṇyaḥ pāśas, tasyo yo 'nnam atti varuṇa enaṃ grāhuko bhavati ... devānām vā etat pariṣūtaṃ yo dikṣito. manuṣyāṇām in naiva pariṣūtaṃ surabhyavāyam//KS 23.6: 81.11//) 大島 智靖(2014) p. 287 각주 6) 재인용.

44) Dikṣā에 들어가는 자는 아그니와 [서로] 신체를 바꿔 입는 것이다. 아그니와 다시 바르게 바꿔 입지 않게 되면, 아그니는 루드라이다. 루드라는 그 자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아그니여 ... ”라고 “흠을 때”, 아그니와 이처럼 다시 바르게 신체를 바꿔 입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지 않기 위한 것이다.”(agninā vā eṣa tanvaṃ viparidhatte yo dikṣate/ 'gnī rudro yad agninā punar yathāyathaṃ tanvaṃ na viparidadhīta/ rudra enam abhimānukaḥ yad āha syād agne ... ity/ agninā vā etat punar yathāyathaṃ tanvaṃ viparidhatta, ātmano 'hiṃsāyai//MS 3.9.1: 113.20//) 大島 智靖(2014) p. 288 재인용.

죽음과 탄생을 경험한다. 새롭게 탄생한 학생은 스승에게 받는 허리띠를 통하여 스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그는 학습 기간 동안 스승의 집에 머물면서 탁발과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스승을 섬기고 시중들어야 한다. 즉 그는 스승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것은 신들에게 봉헌된 희생제물과 유사하다. 그리고 베다학습을 마쳤을 때, 그는 스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재생족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VI. 결론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마나의 고층에 속한 문헌들이 전하는 *dīkṣā* 규정은 제주가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곳은 세속적인 가장으로서 의례적 죽음을 맞이하고 제식에 합당한 제주로서 재생하기 위한 공간이다. 작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는 두 유형의 정화행위를 하게 되는데, 수염과 두발을 깎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곡물제로 시작하는 것이다.

전자는 외적정화의 일환으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물에 의한 정화와 관련된 것으로 정화에 중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내적정화의 일종으로서 불에 의한 정화와 연관된 것으로 성화에 강조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제식행위는 들어가기, 정화하기, 봉헌하기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갖는다. 또한 *dīkṣā*는 정화, 성화, 재생, 입문 등의 함축적 의미를 갖는데, 제주로서의 정화와 희생제물로서의 성화가 1차적 의미이고 재생과 입문은 2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축적 의미들은 시대 변천과 종교 분과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소마제의 dikṣā, 수행자의 tapas, 베다학생의 brahmacarya, 입문자의 upnayana, 특정 종파의 vrata 등은 한 순간에 확립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간결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형되어 갔다. 그 때에 각각의 규범들은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유용한 항목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이었던 규범들이 점차적으로 닮는 결과를 낳았다고 추정된다.

그 결과 처음에는 다른 것을 지칭하던 용어들이 서로 혼용되거나 동치되기도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라마나 시대에는 정화와 성화라는 1차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던 dikṣā가 시대와 종교 분파에 따른 변천 과정에서 재생과 입문으로 강조점이 옮겨가면서 우파나야나와 같은 용어들과 동치되거나 비정통적 학파에서 입문의례를 위한 고유용어로 차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약호 및 참고 문헌

- AV : *Atharvaveda Saṃhitā*. See Joshi(2004).
KS : *Kāthaka Saṃhitā*. See Schroeder(1970-1972).
MS : *Maitrāyaṇī Saṃhitā*. See Schroeder(1923)
ŚB : *Śatapatha Brāhmaṇa*. See Weber(1924) ; Eggeling(1900)
TS : *Taittirīya Saṃhitā*. See Weber(2012).

- 김진영(2006). 「제식의 잃어버린 머리신화,
뿌라와르가야제(Pravargya祭)」, 『인도철학』, 제21집.
인도철학회.
- 정승석(1997). 「인도 신화의 고행주의적 전개」, 『인도철학』, 제7집.
인도철학회.
- 高橋 明(1993). 「Pañcayajña(3) 그리hya祭式研究 X」, 『印度佛敎學研究』,
제41권 2호. 東京: 日本印度佛敎學會.
- 大島 智靖
2006 「dikṣaṇīyeṣṭiと祭主の犠牲」, 『印度佛敎學研究』, 제55권
1호. 東京: 日本印度佛敎學會.
2011 「Vādhūla-Anvākhyānaの伝える潔齊の特徴: VādhAnv IV
4: 犠牲獸神話の考察」, 『印度佛敎學研究』, 제59권 2호.
東京: 日本印度佛敎學會.
2014 「DikṣāとAvāntaradikṣā:
ソーマ祭祭主の超人性とその論理」, 『印度佛敎學研究』,
제63권 1호. 東京: 日本印度佛敎學會.
- 梶原 三恵子
1995 “The brahmacārin in the *Atharvaveda*”,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43-2. 東京:
日本印度佛敎學會.
2002 *The brahmacārīn in the Veda: The Evolution of the
“Vedic Student” and the Dynamics of Texts, Rituals,
and Society in Ancient India*, Ph. D. dissert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2003a 「ヴェーダ入門儀禮の二つの相」: 通過儀禮と學習儀禮), 『佛敎學セミナー』, 제78호.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 2003b 「入門式(Upanayana)と再入門式」, 『印度學佛敎學研究』, 제52권 제1호. 東京: 日本印度佛敎學研究會.
- 2013 「聖なるくことばの傳承: 古代インドのヴェーダ學生をめぐって」, 『文化交流研究』 東京大學文學部次世代人文學開發センター研究紀要, 제26호. 東京: 東京大學.
- 2014 “Seizing the Novices’s Hand and Pouring Water into His Hands at the Vedic initiation Ritual”, *Studies in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m*, Vol. 21. 東京: 東京大學大學院インド哲學佛敎學研究室.
- 永ノ尾 信悟
- 1992 「グリフヤストラ文献にみられる儀禮變容」,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118冊,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 1993 「ヒンドゥー儀禮の變容-朝の勤行を例として」, 『インド=複合文化の構造 通号』. 京都: 法蔵館.
- 引田 弘道(1993). 「dikṣāの一考察」, 『印度佛敎學研究』, 제41집 1권. 東京: 日本印度佛敎學會.
- 阪本(後藤) 純子
- 1993 「髪と鬚」, 『日本仏敎学会年報』, 제59권. 東京: 日本仏敎学会.
- 2008 「‘水たち’ āpasと‘信’ śraddhā: 古代インド宗教における世界觀」, 『印度學宗敎学会論集』, 제35권. 仙台: 印度學宗敎学会.
- 2014 「出家と髮鬚の除去: ジャイナ敎との對比」, 『奥田聖應先生頌壽記念インド學仏敎論集』. 東京: 佼成出版社.
- Eggeling, Julisus trans. (1900). *The Śatapatha Brāhmaṇa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Mādhyandina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 Gonda, J. (1965).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n Religion*. Lond: Mouton.
- Joshi, K. IL. ed. (2004). *Atharvaveda Saṃhitā*. Delhi: Parimal Publications.
- Lubin, Timothy
1994. *Consecration and ascetical regimen: a history of Hindu Vrata, Dīkṣā, Upanayana, and Brahmacharya*. Ph. D.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1. "The Householder ascetic and the uses of self-discipline", *Asceticism and power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eter Flügel and Gustaaf Houtman(ed.). London: Routledge.
- Schroeder, Leopold von
- 1923 *Maitrāyaṇī Saṃhitā: die Saṃhitā der Maitrāyaṇīya-Śākhā*. Leipzig: Otto Harrassowitz.
- 1970-1972 *Kāthaka : die Saṃhitā der Kaṭha-śākhā*. Wiesbaden: F. Steiner.
- Vesci, Uma Marina(1992). *Heat and Sacrifice in the Vedas*, Delhi: Motilal Banarsidass.
- Weber, Alberecht
- 1924 *The Śatapatha Brāhmaṇa in the Mādhyandina Śākhā*. Leipzig: Harrassowitz.
- 2012 *Die Taittirīya Saṃhitā*. Leipzig: Brockhaus.

Abstract

On Three Images of Dikṣā
: entering, purifying, dedicating

Park, Moonseong
(Catholic University)

Dikṣā, which is usually translated into consecration and initiation, was used with words such as tapas, brahmacharya, upnayana. It is a result of various meanings and usag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terms that were originally used in relation to the purification of a sacrificer in the Vedic rites.

The variety of meanings and usages of the term would make readers hard to read the Sanskrit scriptures. The reason is that the implications often can be vary depending on the school, the age, and the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y to reduce these difficulties a little. To do this, dikṣā is analyzed on the three images of the basic structure, namely entering, purifying, dedicating. It is aimed at presenting the causes that are used as terms for initiation by changing meanings and usages.

The scriptures, belonging to the early Brahmāṇa texts, begin by describing dikṣā's rules as a sacrificer enters a small house. The house is a place where he dies as a secular householder and reborn as a sacrificer for rites. Before entering the house, he should practice two types of purifica-

tion, one that begins with cutting beards and hair, and the other begins with dikṣaṇīyeṣṭi. The former is focused on purification related to water as part of external purification, while the latter is related only as a kind of internal purification.

Dikṣā has implications such as purification, consecration, rebirth, and initiation. Among them, the purification and consecration are the primary meaning, and the rebirth and initiation are the secondary meaning. These four implications were emphas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ges and religious sects. As a result, it became a factor which brought a difference in various meanings and usages.

And in the early Brahmāṇa ages, dikṣā was used primarily as the meaning of purification and consecration. However later, by the meaning of rebirth and initiation it became to be emphasized and considered as a synonym term of upnayana or as a technical term of initiation rituals in non-orthodox schools like Jaina and Tantra.

Keywords: dikṣā, purification, consecration, initiation, rebirth.

투고 일자 : 2016년 11월 27일

심사 기간 : 2016년 12월 7일 ~ 12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12월 27일